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gazine

예보광장

2020 AUTUMN+WINTER VOL.47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안전한 예금 SAFE SQUARE

04
예보通
예금보험공사,
언택트 넘어 온택트로 통(通)하다

06
체크! 예보제도
착오로 잘못 보낸 돈?
내년부터 반환지원제도 통해
돌려받으세요!

08
KDIC HOT ISSUE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하다

10
KDIC REPORT
불안한 코로나 시대,
뚜렷해진 안전자산 선호
차곡차곡 쌓인 부보예금

12
KDIC 새얼굴
깊은 인연 맺은 예보,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14
금융제도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금융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따뜻한 금융 WARM SQUARE

18
오! 해피데이
예금보험공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다

20
공간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 디지털혁신 추진
비대면·비접촉 PF자산 매각 시동

22
희망을 밝히는 예보
KDIC 희망뉴딜,
사회적경제의 빛이 되다

24
KDIC 36.5℃
부실 PF사업장
상생형 회수로 되살아나다!

26
인사이드 KDIC①
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로
코로나 시대 한계 기업 숨통 틔우다

28
인사이드 KDIC②
한국형 예보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다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인 위성백
발행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 02-758-0114
팩스 02-758-0040
기획·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행복한 국민 HAPPY SQUARE

30
같이, 가치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체온 1℃ 올리는 DIY 홈스파 용품

32
소통공감
언택트 시대 직장인이여
단순 명확하게 소통하라!

34
트렌드 리포트
중고여도 괜찮아!

36
내 몸 사용백서
소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작심365일 홈트족!

38
문화로 만난 금융
편(fun)편한 유튜브로
금융·경제 상식 쌓기

40
KDIC NEWS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42
독자선물



안전한 예금

SAFE SQUARE

예금보험공사는 어제의 금융을 돌아보고,
오늘의 예금자를 보호하며,
내일의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예금보험공사, 언택트 넘어 온택트로 통(通)하다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언제든 서로를 원활히 연결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온택트(On tact)*'가 보편화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 역시 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온택트 강화에 적극 나섰다.
떨어져 있어도 연결은 그대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온택트 업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사의 활동상을 들여다본다.

*온택트: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충북지역 대학생을 위한 합동 온라인 취업캠프 개최

공사는 8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연수원 소재지인 충북지역의 대학생 대상 온라인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이 날 취업캠프에는 건국대학교(GLOCAL캠퍼스)와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충북지역 대학생 약 150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취업캠프에서는 취업전략 특강과 4개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재직자와의 1:1 취업 상담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질의응답, 1:1 컨설팅 등 실시간·양방향 소통방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공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이 개최했으며, 취업캠프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공계 전공자에 대해서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신규 참여기관으로 포함했다.

이번 취업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취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오늘 알게 된 꿀팁을 활용하여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워크숍 개최

공사는 12월 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축은행의 당면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8회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발표자·토론자 등 모두 각자 사무실에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저축은행 산업의 미래, 디지털 시대 비대면 영업 확대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통공사(FDIC)의 프레드 칸스(Fred Carns)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FDIC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규대출 증가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규제유연화 조치 종료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선헌 KB저축은행 부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만큼,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며 비대면 영업 확대 사례를 공유했다.

최용석 예보 팀장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고수익 자산추구 경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는 저축은행 업권과의 소통 강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착오로 잘못 보낸 돈? 내년부터 반환지원제도 통해 돌려받으세요!

송금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지원한다.
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살펴보자.



비대면 거래 늘며 착오송금 2년새 1.4배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은행 계좌에 보내야 할 돈을 □□은행 계좌에 보내는 등 착오로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일이 잦아졌다.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676억 원에서 2018년 2,965억 원, 작년에는 3,2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 건수는 지난 2017년 11만 5,000여건에서 작년 15만 8,000여건으로, 2년 사이에 1.4배나 늘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적잖은 착오송금액이 미반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착오송금 15만 8,000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착오송금, 예보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내년 7월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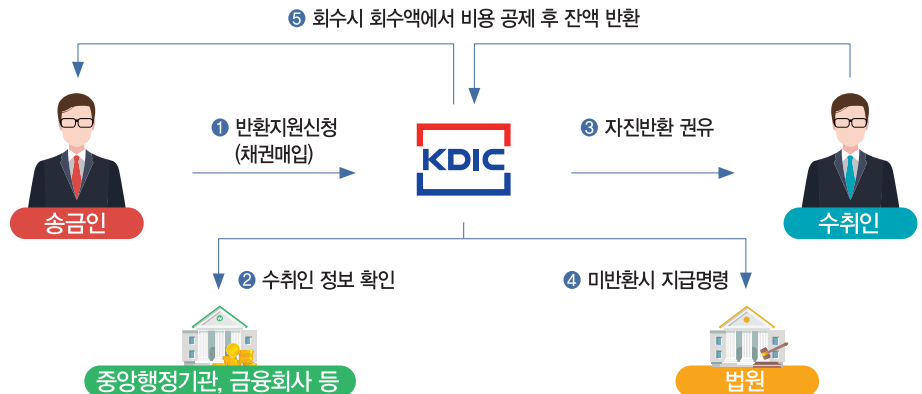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공사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차감 금액은 안내비용과 관련 제도 운영비 등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중단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공사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공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Q&A

Q. 국민세금, 금융회사 출연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국민세금이나 금융회사 출연 없이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회수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Q.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우편료, 차입이자 등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함에 따라, 송금인은 착오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중점 추진해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공사에게 값진 의미로 다가왔다.

RRP 제도 “제2의 리먼 사태를 막아라”

RRP 제도의 출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된 이후,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하여 24개 회원국에 RRP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SIFI란 부실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그간 FSB 24개 회원국 중 한국·인도·사우디를 제외한 21개국이 RRP 제도를 도입했다.

RRP 제도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정상화 실패에 대비한 정리당국의 '부실 정리계획'을 평시 수립하여 사전에 위기에 대비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RRP 제도를 두고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은행들의 '사전유언장'이라고 부른다.

RRP 제도 적용 대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선정 근거
⇒

2016~2020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2021년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회 문턱을 넘은 RRP 제도

공사가 중점 추진해온 RRP 제도의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RRP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매년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된다. 공사는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매년 작성하게 된다. 정상화계획과 정리계획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RRP 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금융사는 현재로선 10곳 정도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SIFI를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6월에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5개사 등 총 10개사가 SIFI로 꼽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연내 공포될 예정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RRP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RP 제도 주요 내용

(1) 정상화계획(Recovery Plan)

금융사 작성 → 금감원 평가
→ 심의위 심사 → 금융위 승인

부실이 심화되기 전,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

- ① 규모,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 ② 정상화조치 발동 요건 지정 (예: 총자본비율↓, 신용등급↓)
- ③ 유동성 조달,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 정상화방안 마련

(2) 정리계획(Resolution Plan)

예보 작성 → 심의위 심사
→ 금융위 승인

자체 건전성 회복 불가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 ① 정리계획 발동 요건 지정 (예: 순자산 부족, 차입금 상환정지)
- ② 청파산, 계약이전 등 정리전략별 비용 및 시장영향 평가
- ③ 금융시장 안정화, 핵심기능의 연속성 유지방안 마련
- ④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평가 및 제고 조치 검토

RRP 제도 기대 효과

SIFI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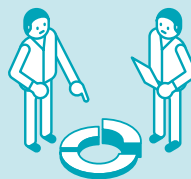
대형금융회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성을 통하여 평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위기시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등 자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당국

조기대응 가능

정리당국은 부실 발생시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스템 혼란 방지 및 공적자금 투입 등 정리비용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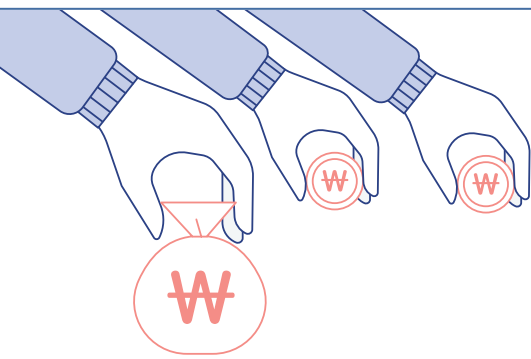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 부문

대외 신인도 제고

IMF·FSB 등 국제기구의 제도 도입 권고 이행으로,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코로나 시대, 두렷해진 안전자산 선호 차곡차곡 쌓인 부보예금

— 2020년 6월말 부보예금 동향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금융기관의 대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2020년 6월말 부보예금 동향>
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금융시장을 진단해본다.



예금자보호 받는 부보예금 반년 새 167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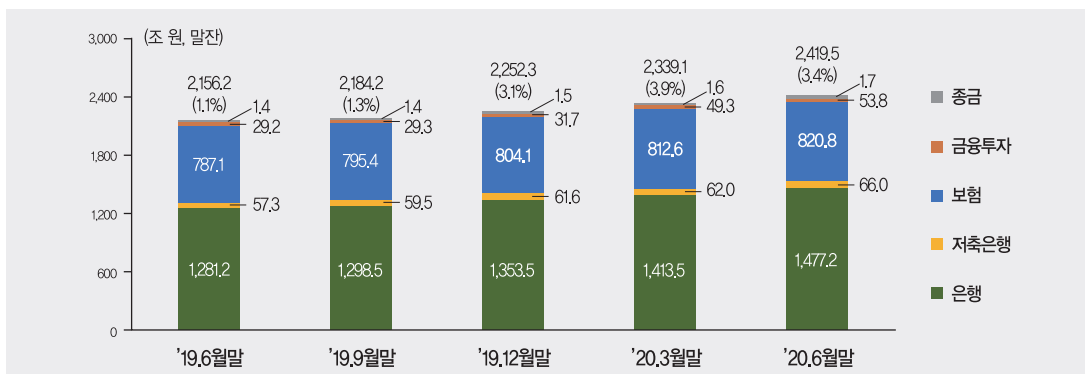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보예금이 2,400조 원을 넘어서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은행·저축은행 등에 예금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도 저금리 기조 및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증시 급락 등 영향으로 금융투자자에게 투자 대기 중인 예탁금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공사가 지난 9월 발표한 <2020년 6월말 부보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부보예금은 2,419.5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3.4% 증가했다. 부보예금은 2019년말 2,252.3조 원에서 2020년 3월말 2,339.1조 원으로 늘었고 2분기 중 80.5조 원 더 늘어 지난해말 대비, 반년 새 167.2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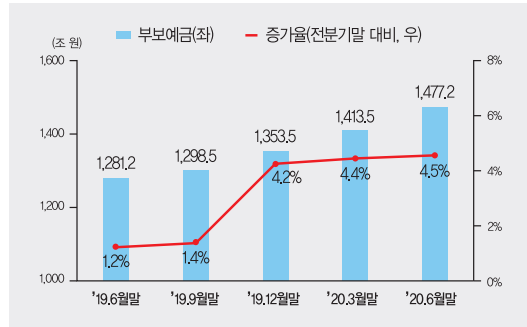
부보예금의 전분기말 대비 증가율은 작년 2분기에 1.1%, 3분기에 1.3%에 그쳤으나 4분기에 3.1%로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 3.9%, 2분기 3.4%로 3%대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부보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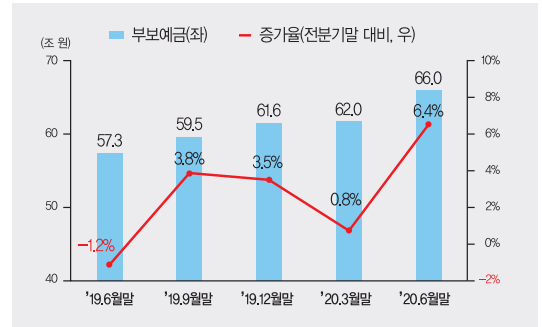
*()내는 전체 부보예금의 전분기말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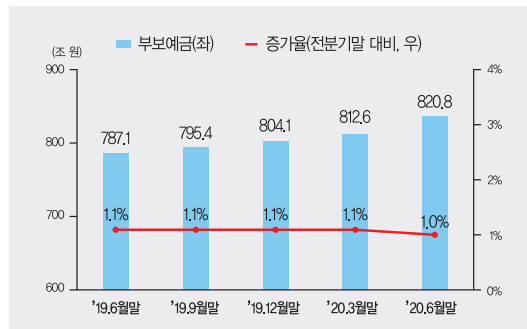
은행업권 부보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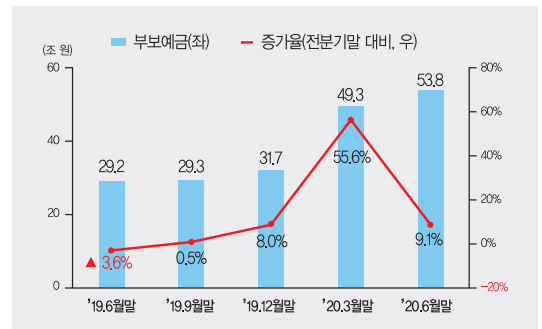
저축은행업권 부보예금 추이



보험업권(생보·손보) 부보예금 추이



금융투자업권 부보예금 추이



부보예금이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은행·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증권사 CMA 등) 중 정부·금융기관 예금, 법인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을 제외한 예금을 말함



은행업권 부보예금 증가세 특히 두드러져

특히 대기성 자금 증가에 따른 요구불예금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의 부보예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6월말 기준 은행 부보예금은 1,477.2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123.7조 원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분기말 대비 평균 각각 0.9%, 2.1% 증가한 것에 비해 3월말에는 전분기말 대비 4.4%, 6월말에는 4.5%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6월말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66.0조 원으로 전분기말보다 6.4% 급증했다. 작년에 전분기말 대비 증가율이 평균 1.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4배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금도 8.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사의 부보예금(투자자예탁금) 증가율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하에서 금융상품(주식 등) 투자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6월말, 전분기말 대비 9.1% 증가해, 2018년과 2019년에는 분기당 평균 각각 2.1% 감소, 2.3% 증가한 것에 비해 주식 등 투자 활성화가 시작된 올해 3월말과 6월말에는 전분기말 대비 각각 55.6%, 9.1% 증가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사 부보예금은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1.0% 늘어나는 등 전년말부터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은 인연 맺은 예보,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이하 '조사본부장')에게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낯설지 않은 조직이다. 2년 차 초임 검사 때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굿모닝시티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그는 당시 자금추적 업무차 파견을 나왔던 공사와 처음 연을 맺었고, 이후로도 몇몇 굵직한 금융·경제사건 수사 때 공사와 협업하여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 이제 공사 내에서 조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새출발을 하게 된 박성훈 조사본부장은 다시 만난 공사와 또 한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굵직한 사건에서 성과를 거둔 회계사 출신 검사

...

박성훈 조사본부장은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로서 부패 범죄, 금융·경제 범죄 수사에 통통하다.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사건을 비롯해 저축은행 비리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최근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로 지낸 박성훈 조사본부장은 지난 9월, 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파견 나와 조사본부장 업무에 임하고 있다.

회계사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때는 법조인이 되어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련 계통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고, 199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지요. 당시 삼성물산 등 기업 회계감사를 주로 했어요. 회계사 2년 차 무렵에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에 입사하여 일을 했어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던 중 여러 경험을 하였는데, 각종 분쟁은 결국 법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법을 알아야만 내 자신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법을 공부해 보기로 결정했고,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수사 경험 중 특별히 기억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일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초임 검사 때부터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1년 차 검사일 때 우연히 TV에서 '논문 대필 사건'이 보도된 걸 봤어요.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논문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지요.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에게 연락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받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보니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사건을 잘 해결 하였고 좋은 성과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년 차 검사였던 2003년에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사건'이 터졌는데, 워낙 피해자가 많았던 사건이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굿모닝시티 수사팀이 차려졌지요. 앞서 논문 대필 사건 때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 제게 회계지식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굿모닝시티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사와 처음으로 인연이 닿았어요. 저는 수사팀에서 자금추적을 담당했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라, 공사에 해당 업무를 도와줄 요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공사와의 인연이 처음 맺어졌지요.

2014년 증권범죄합수단 시절 수사했던 '벽산건설 주가조작 사건', '보루네오가구 주가조작 사건' 등도 기억에 남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없는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돈을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통해 이익을 봤던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이었어요. 이때도 공사 관계자분들이 계좌추적 업무 차 파견 나와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들 일당을 철저히 수사해서 구속하고 사건을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12년 미래저축은행·프라임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굵직한 경제 사건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성과를 내신 건지요?

...

지난 2009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도 자금난을 겪게 됐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부산저축은행을 필두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문제가 됐었지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검찰에서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에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을 꾸려 사태를 대처했어요. 저도 2011년에 본 수사단에 합류하였는데, 이때 '미래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을 맡았습니다.

미래저축은행 수사 때 비리에 관련된 경영진과 대주주, 이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 등을 잘 밝혀내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회수작업에 들어가 수백억 원대 현금, 유가증권 등을 회수하여 공사에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낮설지 않은 조직, 예금보험공사에서 힘찬 행보를 시작하다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부는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거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는 곳이



다. 박성훈 조사본부장은 공사 임직원들이 부실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해준 덕에 매년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공사로 파견 나간다는 인사발표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는 검찰 내에서도 일을 잘하는 선배 검사들이 파견갔던 곳으로 평소 동경하던 기관입니다. 또 이전에 같이 협업했던 공사 직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즐거웠지요.

부실책임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발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해외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나 재산 조회를 할 수 없어 은닉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해당국가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답변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끝으로 예보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

예금보험공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부실 책임을 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지요. 이렇듯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분들과 잘 소통하고 배우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금융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큰 틀에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요 금융정책을 소개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1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 新성장기업 금융지원 확충 및 GVC 변화대응

바이오, 비대면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신산업부문 및 GVC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등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 추진

■ 자본시장 자금흐름 유도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 기관과 개인의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유입을 유도



#2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 준비

■ 금융산업 구조개편 대응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하여 금융권의 디지털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의 제도기반을 마련

■ 언택트, 홈오피스 시대 대비 규제 정비

전방위적 언택트 확산 흐름에 맞춰 본인확인, 망분리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 결제 관련 규제체계 등 인프라를 전면 혁신

■ 금융분야 新산업 육성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도모

■ 국제금융질서 변화 대응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제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처

#3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 서민금융 지원강화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이용 및 재기지원을 확대

■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확대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디지털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재정비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안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행 개선

#4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 혁신과 보안의 균형 도모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혁신’과 ‘안정·보안’간 균형을 확보

■ 금융취약요인 관리

코로나19로 촉발된 시장불안 확산시 취약요인으로 부각된 제2금융권 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제도정비 추진

■ 기업부문 리스크 관리, 고위험 투자 확대 등 기타 취약요인 관리

기업부문 리스크 증가 및 저금리 기조·유동성 확대에 따른 고수익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쏠림현상에 대비





따뜻한 금융

WARM SQUARE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
예금보험공사가 포용금융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다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 인증 획득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부패 리스크와 뇌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프로세스와 관리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을 계획이다.



반부패 청렴정책의 주춧돌, 공직윤리강화TF 설치

2019년 5월 공사는 인사혁신처와 첫 인사교류를 시행했으며, 공직윤리 전문가인 인사혁신처 이수길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임명하여 공직윤리강화TF(이하 '공직TF')를 신설했다.

공직TF는 출범 후 계약 관련 갑질 방지 모니터링 제도인 청렴 콜과 직무 관련 외부인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직원 대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개선하고, 내부 직원 중 각 부서를 대표하여 선발된 청렴윤리실 천리더를 반부패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청정 예보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ISO 37001 인증 획득을 통해

공사, 반부패·윤리 경영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

공사는 지난 6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 획득하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인증식을 개최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기준이다.

공사는 공직TF 실장을 부패방지책임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매뉴얼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인 부패방지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2단계에 걸친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ISO 37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위험을 사전에 인지 및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입증받았다.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전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패리스크 평가를 통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을 자체 진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값진 결과물을 얻었다.

공사는 금번 ISO37001 인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 받는 청렴한 조직이 될 것을 다짐했다.

공직윤리강화TF, 국가 정책을

민간에 전파하는 공직가치 구현에 최선

공직TF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직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에도 국가 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금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5대 국가상징(태극기·무궁화·애국가·국새·나라문장) 교육을 추가했다. 국가상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최초 시도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가상징 알아보기' 배너를 링크시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활동이다.

이러한 공직TF 활동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외교업무 발전과 인사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예금자보호 홍보물에 도로명주소 홍보 문구를 삽입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20년 지역발전 분야에서 정부단체 표창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직TF는 대통령 표창이라는 쾌거를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업무 및 공직윤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부평고등학교 대상 교육 모습



전주 꽃발정이 아동센터 대상 교육 모습

예금보험공사, 코로나 시대 디지털혁신 추진 비대면·비접촉 PF자산 매각 시동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디지털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에 대해 비대면·비접촉 입찰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도 PF자산 매각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공사의 모습을 주목해본다.

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PF자산 속속 매각

공사는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에서 대출 담보로 보유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산을 매각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PF란 금융기관이 차주사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 진행 중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금융기법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공사는 이 중 올해 11월 말까지 657개(86.8%)를 매각해 약 4조 4,862억 원을 회수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골프 수요증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등에 따른 아파트부지에 대한 높은 시장관심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골프장 및 아파트부지에 대한 매각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권리관계가 복잡해 그간 수차례 공매에서 유찰되었던 강원 횡성 골프장부지 및 충북 음성 골프장부지,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사업부지, 봉담뉴타운 및 김포 아파트 부지 등 31개 PF자산을 2,223억 원에 매각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앞으로도 미매각 자산의 매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PF사업장 조기 정상화 및 매각 전 임대·공익목적 활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0년도 PF자산 매각 주요물건



강원 횡성 골프장부지(매각액 430억 원)



경기 화성시 아파트 사업부지(매각액 298억 원)



비대면·비접촉 PF자산 홍보·매각으로 코로나19 예방

최근 공사는 정부 디지털 혁신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비접촉,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와 매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현장답사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공뷰 등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PF사업장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식이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매수자에게 사진이나 지도 등 2차원적인 데이터만을 제공했으나, 올해 9월부터는 드론을 통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매물의 전체 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은 예보공매정보(KDIC-Asset)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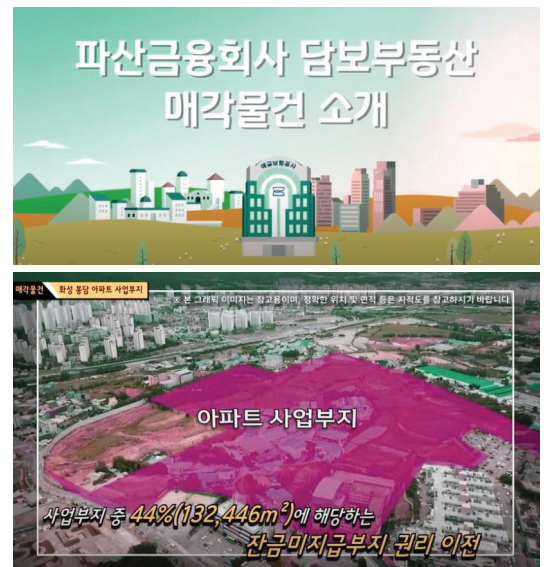
공사는 또한 PF사업장별 교통여건·입지, 매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투자노트를 PDF, 책자 형태로 별도 제작해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관·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언택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PF자산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을 적극 활용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대면접촉 없이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매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입찰장소에서의 코로나19 발생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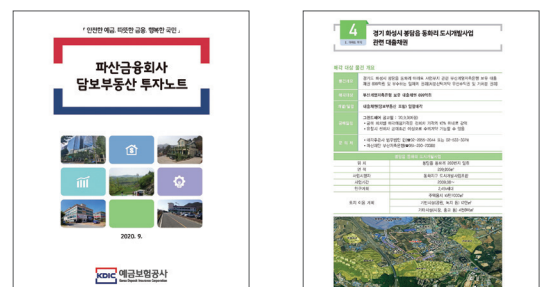
공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매각 및 회수 노력을 통해 장기간 사업중단된 PF사업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회수된 자금으로 파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PF자산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랜선 통해 알아보세요!

〈드론을 활용한 홍보동영상〉



〈파산금융회사 담보부동산 투자노트〉



KDIC 희망뉴딜, 사회적경제의 빛이 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로드맵인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디지털·그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KDIC 희망뉴딜' 사업을 시작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분야 사회적기업에 희망을 쏜다

공사는 지난 10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디지털·그린 분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KDIC 희망뉴딜' 사업을 시작했다.

공사는 우선 사회적가치연구원과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기업 13개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500만 원씩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후원했다.

협력 사업으로는 ▲ 생활용품 기부·판매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 정보 취약계층에 PC 업그레이드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 지원 ▲ 지역사회 무료소독 등이 있다.

위성백 사장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작은 나눔과 'KDIC 희망뉴딜'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다

공사의 KDIC 희망뉴딜 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본 사업이 이들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이 실시된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리사이클 매장 ‘숲스토리’를 직접 방문해 생활용품 600여 점을 기부했다. 이는 ‘사회적가치 나눔데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부한 용품이다. 공사는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및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및 자립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복지 조성’,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지난 11월에는 홍삼제품 가공기업 ‘나눔푸드’의 판로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홍보 및 공사 직거래장터에 초청했다. 나눔푸드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결식아동 도시락 및 홍삼가공품을 생산 중인 사회적기업이다. 공사는 본 지원책이 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지난 11월부터는 IT기기 전문 재활용 사회적기업 ‘리맨’과 협업하여 공사에서 연간 100대 내외로 발생하는 불용 PC·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후 어르신,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불용 노트북을 폐기하거나 업그레이드 없이 단순 기증했기 때문에 노트북의 성능 저하 문제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공사는 사회적기업 리맨의 손을 거쳐 재탄생한 노후 노트북 74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기도 했다. 공사는 본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대’ 및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완화’,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도 공사는 KDIC 희망뉴딜 사업이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리사이클 매장 숲스토리에 방문한 임직원들



공사 직거래 장터에 초청된 나눔푸드 물품을 구매하는 직원들

MINI INTERVIEW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내수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 중심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도 KDIC 희망뉴딜 사업을 통해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경영부 장진용 부장

“공사는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후원하고 판로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뿐만 아니라 상생의 생태계 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경영부 이성규 팀장

부실 PF사업장 상생형 회수로 되살아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 자산회수부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담보물을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여기서 담보물의 매각은 차주사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청산형 회수방식'으로, 파산재단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지만, 차주사는 사업용 자산이 매각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사업 기회를 잃고 망연자실하는 차주사들을 보면서 공사는 차주사와 상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 회수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최근 2개 PF사업장을 정상화하고 대출채권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차주사의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864억 원의 회수성과를 달성한 공사의 '상생형 회수 사례'를 소개한다.



#1

채무 상환부담 완화로 차주사의 사업정상화 이끈다 - 경기 가평 유원지 사업장

사건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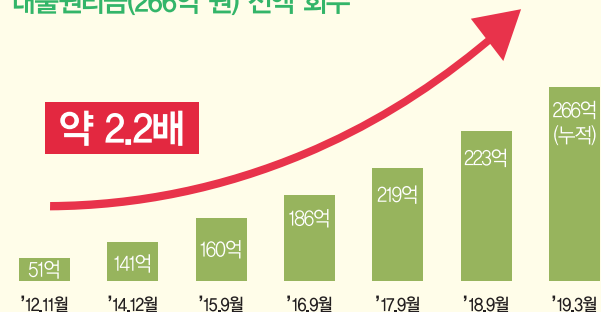
지난 2009년, A 저축은행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스키장 및 콘도 사업을 추진하던 B 건설회사에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1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그로 인한 자금조달 불가, 사업 인허가 지연이 겹치면서 차주사의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A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는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매각해야 했지만, 담보물 매각시 공사는 후순위채권자로서 회수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차주사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업을 통한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공사는 대출채권 회수만을 위해 회수실익이 저조한 담보물 매각방식을 추진하기보다는 차주사의 사업가능성과 사업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주사를 지원하는 상생형 회수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우선 담보물 매각을 유보하고, 차주사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중단된 PF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출금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등을 적용했다. 낮은 금리와 분할 상환으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할 채무의 부담이 줄어든 차주사는 자금을 융통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잇따른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공사 또한 담보물 매각시 회수예상액이 122억 원에 불과했던 본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266억 원을 누적회수했다. 이는 회수예상액 대비 약 2.2배 높은 금액으로 공사의 회수에 높이 기여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대출원리금(266억 원) 전액 회수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B 건설회사 ㄱ 과장은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공사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줘서 사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2

특별약정 체결로 일석삼조 효과 거두다 - 인천 동춘동 아파트 사업장

사건 배경

지난 2009년, C 등 7개 저축은행은 인천 동춘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D 주식회사에 총 572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파산과 시공사의 워크아웃, 부동산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차주사의 아파트 사업은 중단됐다. 7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는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에 대한 신탁공매를 진행했지만, 감정가의 66%에도 유찰되는 등 조기 및 적정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서 공사는 담보를 매각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차주사의 사업정상화와 대출채권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공사는 타 대주와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분석하고, 회수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논의 결과, 본 건 사업장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사를 포함한 대주단은 차주사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특별약정은 ▲담보물 매각 보류 ▲대출금 만기 연장 ▲대출금 금리 인하 ▲신규자금 500억 원 투입 등 차주사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차주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신규자금 투입은 자금투입이 불가한 파산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자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통해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자금투입을 적극 유도한 것이다.

그 결과, 차주사는 특별약정 체결 4년만에 아파트 1,180세대를

100% 분양 완료하고, 4,130억 원 분양수익을 얻었다. 공사 역시 담보물 매각시 타 대주의 존재 등으로 회수 예상금액이 200억 원에 불과했던 본 사업장에서 7개 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598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함으로써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시장 안정 등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공사 덕분에 워크아웃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D 주식회사 L 부장은 “워크아웃과 사업장 공매위기 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선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차주사를 지원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어 아파트 사업을 잘 끝내고, 최근 입주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타 지역 아파트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워크아웃 졸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상생형 회수는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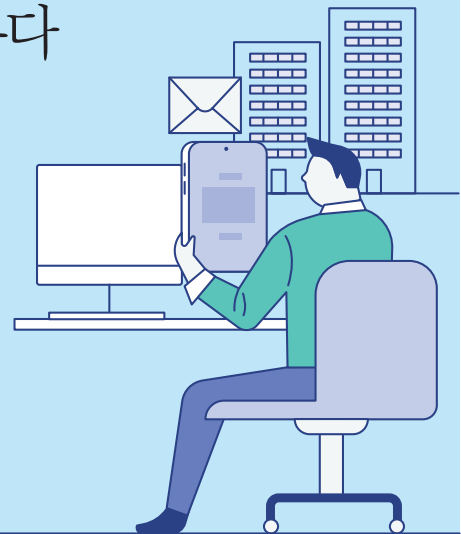
공사는 앞의 2가지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2020년 8월 기준, 잔여 PF 사업장 98개 중 상생형 회수방식이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파산재단 배당채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차주사가 사업을 재기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차주사에 대한 지원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로 코로나 시대 한계 기업 숨통 틔우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다. 기금은 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조성되며,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공사는 '공공성예금 운용'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매입' 등 기금 운용의 공공성을 강화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금융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성예금 운용

...

공사는 기금 일부를 공공성예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코로나 19 피해기업, 소재·부품·장비 업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에 저금리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 재원을 조성하며, 공사는 예치금 이자에서 일부(예: 0.3%p)를 부담하고 은행도 재원 및 대출 금리 손실을 부담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지원을 위해 공공성예금을 대규모로 확대 운용 중이다.

2월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1,000억 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낮은 금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출시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예금보험공사·기업은행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식

6~8월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에 총 1,900억 원 규모의 공공성예금을 추가 투입했다.

10~11월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적극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성예금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공사는 특히, 10월 운용분부터 공사 투입분에 은행의 추가재원을 더해 대출재원 조성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늘리고 공공성예금의 효과를 제고했다.

(단위: 억 원)

구분	20. 2월	20. 6월	20. 7월	20. 8월	20. 10월*	20. 11월*	합계
규모	1,000	1,100	500	300	1,000	1,500	5,400

* 공사 투입분 및 은행 추가재원 합산 금액

정부정책 지원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1,000억 원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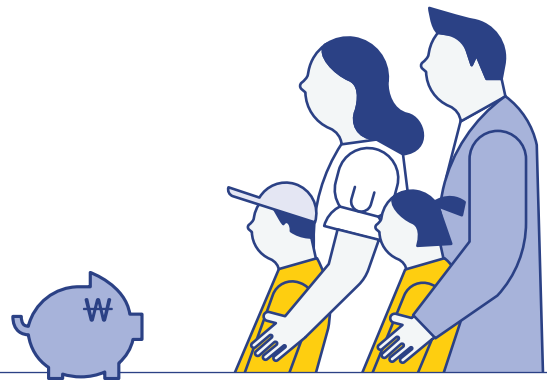
...

공사는 공공성예금 운용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1차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경쟁입찰에 적극 참여하여 1,000억 원을 매입했다.(총 발행물량 2,400억 원 중 약 41.7%)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파로 항공과 해운 등 기간산업(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도록 했다. 채권은 은행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입하는데, 이러한 채권에 정부가 최대 40조 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채권 매수자들의 신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사는 예보기금의 채권 매입을 통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및 증권사와 팀장급 회의를 실시하고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을 사

전에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또한, 실제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로 입찰에 참여하여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초로 발행되는 채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공사는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하는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으며, 이번 채권 매입을 통해 기간산업의 고용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의 안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A to Z

지원절차

기금지원 신청기업체 상담 → 주채권은행 의견서 → 기금신청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약정체결 및 기표 → 사후관리

지원대상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자금지원 조건

- 일정 수준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총 지원액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에 따른 자금지원 포함할 것
-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한국형 예보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다

제6회 글로벌 예보제도 연수프로그램 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로 한국형 예보제도에 대한 자문 요청이 있어왔다. 공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글로벌 예보제도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수프로그램은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이례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공사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6회 글로벌 예보제도 연수프로그램(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실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4개 대륙 22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Webinar)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위기대응과 금융회사 정리(Crisis management & Resolution)'를 주제로 공사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 방법 및 사례에 대한 강의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금융회사의 실제 부실사례를 제공 받아 정리 방식을 도출하고 온라인 실습 사이트에 접속해 예금보험금을 계산했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통상 연수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문화체험활동의 경우에도 비대면 상황을 반영하여 Vlog 방식으로 가상문화체험활동(Virtual Excursion)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국내기업의 비대면 세미나 플랫폼인 리모트 세미나(Remote Seminar)를 통해 실시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알리고 해당 기업에게 글로벌 활용 사례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극복 및 예보제도 운영 경험을 해외 각국과 공유하여 한국형 예보제도 확산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을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운영 현황

~ 2019년

총 5회 실시
총 22개국 예보기구 직원
90여명 참석

2020년

총 22개국
예보기구 직원
200여명 참석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프로그램



가상문화체험활동(Virtual Excursion) Vlog 영상화면



행복한 국민

HAPPY SQUARE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체온을 1℃만 높여도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몇 배나 강화된다는 사실!

추위로 딱딱하게 경직된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고 얼어붙은 기분까지 따스하게 녹여주는

배쓰타임에 꼭 필요한 ‘입욕제’와 ‘배쓰솔트’를 만들어보며 겨울 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보자.

온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체온 1℃ 올리는 DIY 홈스파 용품



물에 풀어서 쓰는 입욕제 만들기 (100g 4개 기준)

재료 및 도구

베이킹소다 250g, 구연산 120g, 옥수수전분 20g, 글리세린 1티스푼, 가용화제(올리브리퀴드) 7g, 에센셜 오일 4방울, 식용색소 1/2티스푼, 보울, 구형 틀 4개, 티스푼, 계량기, 주걱

*식용색소는 원하는 색상으로 정량만큼 배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적당량 넣으면 로맨틱한 입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



1 보울에 베이킹소다, 구연산, 옥수수전분을 넣고 주걱을 이용해 고루 섞어주세요.



2 디자인을 참고해 ①을 2가지로 나누고 식용색소를 넣어 색을 내주세요.



3 나눠놔던 가루 ②에 에센셜 오일, 글리세린, 가용화제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한 번에 넣으면 거품이 생깁니다.



4 가루를 몽쳐 구형 틀에 차곡차곡 담으면 완성!

목욕용 소금 배쓰솔트 만들기 (100g 4개 기준)

재료 및 도구

사해소금 400g, 라벤더 에센셜 오일 4ml, 장미잎 5g, 로즈마리잎 5g, 보울, 계량기

*로즈마리, 라벤더 등 취향에 따라 시중에 나와 있는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준비하시면 더 완성도 있는 배쓰솔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



1 배쓰솔트 보관용기에 사해소금을 담는다.



2 ①에 에센셜 오일을 넣는다.



3 2가지 드라워 플라워를 넣어 섞는다.



4 준비한 용기에 담으면 완성!

Tip 홀스파, 더 제대로 즐기는 방법!

입욕시간 준수하기

입욕시간은 되도록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입욕 시간이 너무 길면 피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피지까지 씻겨져 피부를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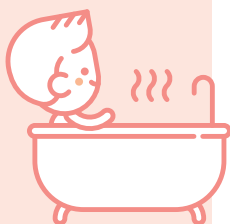
물의 적정온도 지키기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40℃ 정도가 되도록 따뜻한 물로 욕조의 3분의 2 정도를 채운다. 40℃가

넘는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 노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피한다.

스파 후에는 보습관리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는 충분한 보습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삼투압 현상으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처질 수 있으니 물기가 있을 때 바로 오일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전례 없이 확대하면서 메신저나 이메일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비대면 근무나 온라인 소통 등의 업무방식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맥락을 살피기 어렵고, 직접 대면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필연적으로 시간의 지연과 대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고 정확한 소통'이 더욱더 중요하다.

언택트 시대 직장인이여
단순 명확하게
소통하라!



메신저와 이메일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법

일상과 달리 일터에서는 늘 정확히 말해야 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말해야 하는데, 말할 기회와 시간은 형편없이 부족하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언어는 프로젝트 지연으로, 상사의 질타로, 부서원의 항의로, 클라이언트의 오해로 건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말을 잘한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소통에 능한 것은 아니다. 글을 잘 쓴다고 해서 기획서도 잘 쓰리란 법은 없다. 즉, 일에 특화된 ‘일의 언어’라는 것이 있고, 일의 언어는 외국어 배우듯 새로 배워야 하는 기술이란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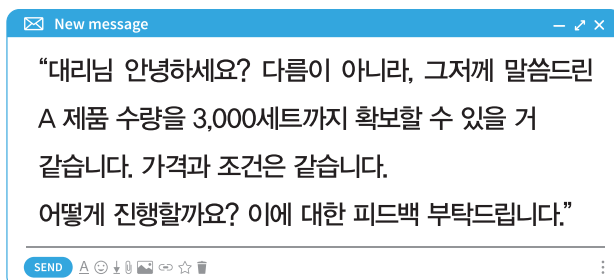
일의 언어에서 단순함과 정확성은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텍스트로 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난도가 높다. 정보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때는 평소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상대가 내가 전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수단인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어떻게 정확하게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공유한다.

Tip. 1

커뮤니케이션 시차를 고려해서 완결형으로 말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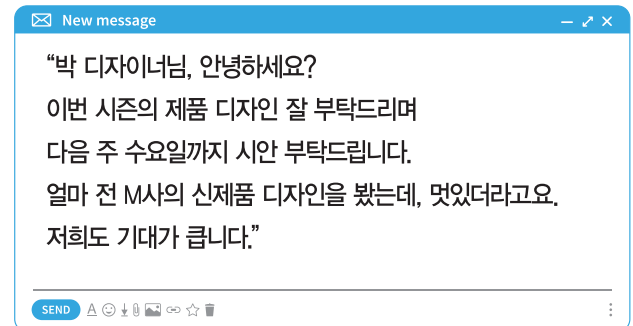
메신저와 이메일 같은 텍스트 기반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필연적으로 ‘지연’과 ‘대기’가 생겨난다. 이런 의미에서 메신저와 이메일은 ‘대화’의 확장형이 아니라 ‘비즈니스 서신’의 확장형이다. 그러니 채팅처럼 이야기하면 시간을 몇 배로 낭비하게 된다. 텍스트형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서로 몇 시간에 한 번씩 답변해도 문제가 없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담은 완결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Tip. 2

‘지시와 의견’, ‘느낌과 요청’을 뒤섞지 마세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정보를 뒤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시와 의견, 느낌과 요청을 섞기 때문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박 디자이너는 이걸 보고 M사와 유사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다. 결과는? 담당자는 결과물을 보고 싫은 내색을 하며 요즘 자기들 회사의 콘셉트는 컬러풀한 화려한 이미지인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듣는 사람은 “M사의 신제품 디자인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라는 말을 요청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머릿속에 떠오른 별 의미 없는 ‘그냥 생각’은 아예 쓰지 않는 게 좋다.

Tip. 3

상대방이 궁금한 게 없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때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의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단순하고 명확한 소통이 반드시 ‘짧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전체적인 업무량을 줄이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사내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상사에게 메일로 전할 때는 ‘행사 개요’, ‘명단 확정’, ‘진행 스케줄’, ‘참고자료’, ‘부탁 말씀’, ‘문의처’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담아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좋다.



중고여도 괜찮아!

경기 불황 속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진화한 전문적인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경제한파 속에도 뜨거운 중고거래 열풍을 짚어본다.



쑥쑥 성장하는 중고거래 시장

중고거래 성장을 견인한 주요 배경으로는 저성장 장기화가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중고거래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소비문화로 떠올랐다. 2008년 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20년 약 20조 원대의 대형시장으로 몸집을 불렀다.

특히 올 한해 관련 시장의 성장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돈벌이는 줄면서, 중고 제품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고거래 앱을 통한 안전결제 등의 보호 장치 생성과 비대면 거래가 쉬워진 부분도 한몫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고거래 앱을 쓰는 순이용자수(UV)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1,09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은 중고거래 앱을 쓴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당근마켓은 지난 9월 월간 활성이용자(MAU)가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전문 판매자가 물건을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한 M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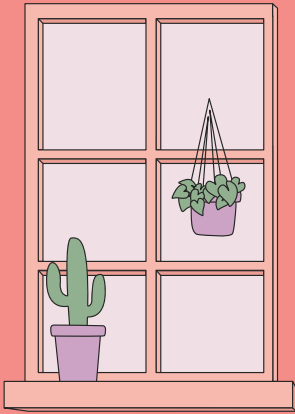
최근 보여지는 중고거래 시장의 확대는 모바일에 친숙한 MZ세대(1980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국내 3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번개장터가 발표한 <2020 번개장터 중고거래 취향 리포트>에 따르면 중고거래 주 이용자는 MZ세대였다. 젊은 세대의 관심에 힘입어 번개장터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고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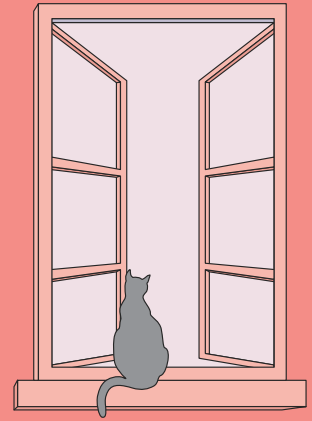
MZ세대에게 중고거래는 돈을 아끼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들에게 중고거래는 합한 취향 소비다. 한정판 스니커즈나 굿즈를 찾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중고물품은 '숨겨진 보석'이기도 하다.

MZ세대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재테크의 일환인 '리셀(resell·되팔기) 문화'를 활성화하기도 했는데, 리셀은 새 상품에 가까운 중고 한정판 상품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일반 중고거래와 달리, 되팔 때 오히려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 사이에서 이런 리셀 문화는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저서를 통해 "MZ세대는 중고마켓에서 취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며 놀이터처럼 즐긴다. 산 물건을 되파는 리셀은 기존 중고제품 거래의 맥락을 넘어서다"고 설명했다.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꾸준한 운동이다.
다이어트 뒤에는 늘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작심365일'을 실천하게 하는 재미있는 운동법은 없을까?
작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는 홈트레이닝 소도구로
몸의 라인을 살리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보자.



소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작심365일 홈트족!



체지방 불태우기 고무밴드+스쿼트

한 세트 15회, 총 3세트_ 고무밴드는 저항을 이용해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의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 관절이 좋지 않은 곳을 운동할 때도 개인의 근력과 상황에 맞춰 무리 없이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Step 1.

양 무릎 바깥쪽으로 밴드를 건 후, 안으로 조이려는 밴드의 탄성을 무릎의 힘으로 벌린다.



Step 2.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한다.

힙업에 제격 짐볼+브릿지

한 세트 10회, 총 3세트_ 짐볼은 공의 탄성을 이용해 몸의 균형을 잡으며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다. 움직이는 공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기 때문에 평소 쓰지 않는 근육까지 쓸 수 있다.

Step 1.

짐볼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양팔은 45°로 벌린다.



Step 2.

두 발로 짐볼을 누르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 올린 뒤 2~3초간 그 자세를 유지한다.



하체 부종 종결 폼롤러+다리 스트레칭

폼롤러는 주로 자가 근막 이완법에 사용되는 소도구이다. 여기서 근막은 근육을 외부에서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근육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Step 1.

폼롤러에 종아리를 올리고 앞뒤로 움직여준다.



Step 2.

다리 근육이 풀릴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팔다리 근육 강화 케틀벨+스윙

한 세트 20회, 총 5세트_ 케틀벨은 덤벨과 달리 원심력을 이용한 빠른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 팔다리 근육은 물론 코어 근육(몸에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키워주고, 유연성, 심폐 조절력도 키울 수 있다.

Step 1.

케틀벨을 두 손으로 들고, 몸 앞쪽에 둔 다음 발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허리는 편하게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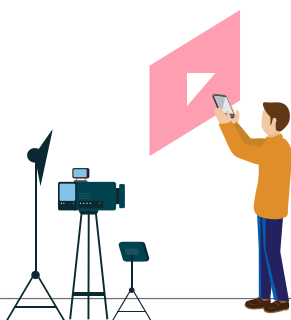
Step 2.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원심력을 이용해 케틀벨을 다리 사이로 넣었다가, 무릎을 펴면서 케틀벨을 들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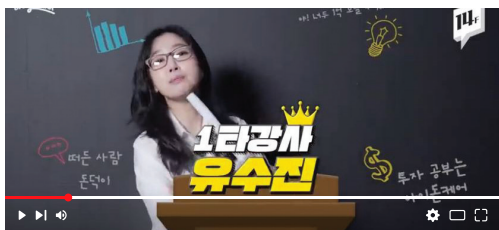


편(fun)편한 유튜브로 금융·경제 상식 쌓기

유튜브가 온갖 상식을 총 집약한 지식의 장으로 떠올랐다. 검색창에 금융 공부, 주식, 종잣돈 모으는 법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튜브가 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여타 금융권에서도 자사 내 전문적인 금융·경제 정보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이다. 알찬 금융·경제 상식을 품은 콘텐츠로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다.



▶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돈 이야기 일사에프(14F) 아이돈케어



‘14F’는 MBC 뉴미디어 뉴스국에서 20대를 타깃으로 첫 선보이는 모바일 전용 뉴스 콘텐츠로,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포맷이다.

‘SNS로 돈 버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초년생, 월급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도 적은 편인데, 수중에 남는 돈은 왜 이리 적을까?’ 14F에서 제작 중인 ‘아이돈케어(내 돈은 내가 지킨다)’ 콘텐츠는 이런 궁금증으로 가득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기초적인 경제 체력을 길러준다. ‘부자언니’로 알려진 유수진 자산관리사가 직접 알려주는 월급 관리부터 주식, 재테크, 보험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생활경제 용어들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하다. 여기에는 유튜버 슈카월드,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등 여러 경제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는 알찬 재미를 더한다.

사진출처 일사에프(14F) 유튜브 갈무리

▶ 존리가 알려주는 금융문맹 탈출법 존리 라이프 스타일 주식



‘주식투자 전도사’로도 불리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유튜브 채널 ‘존리 라이프 스타일 주식’을 개설하고 경제 유튜브로 본격 변신했다.

지난 1월, 존리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도 이와 같다. 유튜버가 되어 금융문맹을 없애는 것이 그의 목표다. 빈곤이 심해지고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금융에 대한 기초 상식과 국내·해외 경제적 이슈를 개인의 경험과 함께 전달해준다.

존리 대표는 그의 주종목이기도한 주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주식이 무엇인지, 주식을 왜 해야하는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만의 투자 철학을 전한다.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사진출처 존리 라이프 스타일 주식 유튜브 갈무리

▶ 사회에선 알려주지 않는 경제 수업 스브스뉴스 돈워리스쿨



‘사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제수업’이라는 부제를 단 ‘돈워리스쿨’은 기성시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인 요즘 세대의 돈에 대한 고민과 애환을 정면으로 다루고, 그들 눈높이에 맞춘 경제상식과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또 ‘전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는 이유’, ‘2030 보험료 가이드라인’ 등 경제상식 초보자들이 솔깃할만한 경제 이야기를 전한다.

SBS ‘보도본부’가 기획해 론칭한 콘텐츠로 주타깃은 2030세대다. 2019년 시즌 12편 방영을 마쳤고, 올해 시즌2 16부작도 유종의 미를 거뒀다.

보다 보면 재테크에는 펀드, 주식, 부동산 외의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돈을 아끼는 기상천외한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으니, ‘돈’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출처 스브스뉴스 유튜브 갈무리

▶ 돈 버는 법 알려드립니다
신사임당



경제전문 방송사 PD 출신인 주연규 씨가 진행하는 '신사임당'은 2018년 5월 개설돼 구독자 120만 명(20.12월 기준)을 넘어선 인기 채널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달 1,000만 원 만드는 방법, 4년간 장사를 하며 깨달은 창업 노하우 등 두 귀를 쫓긋 세우게 만드는 주제를 앞세워 구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신사임당은 쇼핑물 운영 노하우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투자 등 재테크 전반을 다루는 멀티 플레이어로 성공을 거뒀다. 최근에는 재테크, 저축,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대담하며 그들의 경험을 통한 경제 지식과 재테크 등의 정보를 설파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출처 신사임당 유튜브 갈무리

▶ 알찬 금융정보부터 직원 브이로그까지
예금보험공사 소식, 유튜브에 많다!



공사는 유튜브 채널 '예금보험공사'를 개설하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공식 유튜브에는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물론 취업 및 금융 정보 등 공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다. 또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궁금해 하는 구독자들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VLOG,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일상을 촬영한 영상 일기)도 있으니, 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고 싶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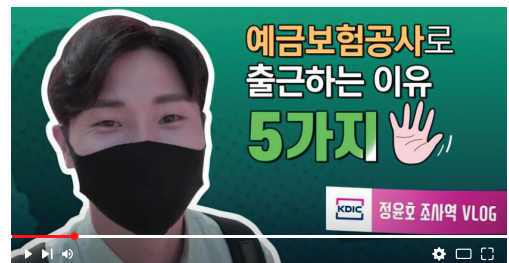
사진출처 예금보험공사 유튜브 갈무리

▶ '예금보험공사' 주요 콘텐츠 한눈에 보기



▶ 예보 소개

본 콘텐츠에는 공사 소개와 역할, 세부 업무 등 공사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가득하다.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표시·설명·확인 제도', '차등보험료율제', '생활금융교육' 등 공사 내 금융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놓았다.



▶ 예보 라이프

'예금보험공사 취업 꿀팁은?', '공사 직원들은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지닌 이들을 위한 콘텐츠다. 공사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사내 이야기가 담겨있다. 특히 '시켜서 찍은 브이로그'라는 솔직한 타이틀을 단 '예금보험공사 브이로그' 영상은 조회수 5만 7,000회를 기록할 정도로 구독자의 반응이 열렬하다.



▶ 예보 공매 정보

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예보 공매 정보를 담은 콘텐츠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매각 물건을 볼 수 있다. 평소 공매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정보통이다.

사진출처 예금보험공사 유튜브 갈무리

예금보험공사
유튜브로 바로가기!



KDIC NEWS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 워크숍」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0월 29일, 청렴문화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자회사와 공동으로 「청렴·윤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자회사인 예울FMC 및 케이알앤씨 대표이사와 직원 대표가 공정한 업무수행, 부정부패 척결 노력 등에 관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선포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쇄신 의지를 공동으로 표명했다. 전직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SNS 기자단 17기, 온라인 발대식 통해 출범

공사는 10월 29일,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 17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SNS 기자단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예금자보호제도를 비롯한 경제·금융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건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 효과로 의식불명 직원 살려내

지난 11월 9일 오전 11시 40분경, 업무시간 중 쓰러진 직원에 대해 확대 비치된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동료 직원들이 사전에 교육받은 대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은 평소에 직원들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안전장비 비치와 직원 안전교육을 착실히 수행한 효과라고 평가했다.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성실상한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 감면 실시 ▲채무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사회소외계층 추가적 원금감면율 및 범위 확대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 도입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재무학회·예금보험공사, 온라인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재무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1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안정'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동국대 강경훈 교수와 인하대 한재준 교수의 발표가 이뤄졌다. 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금융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판 뉴딜 대학(원)생 논문·청소년 UCC 공모전」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그룹,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대학(원)생 논문·청소년 UCC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로부터 코로나19 극복 및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뉴딜정책에 대한 참신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됐다. 한편 공사는 금융과 공공부문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 노사문화대상」 수상

예금보험공사는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20년 노사문화대상(大賞)」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합동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 비정규직 Zero, 차별없는 일터 조성, 여성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사간 역량을 결집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노사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일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gift

예보광장 독자를 위한 선물

〈예보광장〉은 독자 여러분과 더 나은 매거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그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보광장〉의 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EVENT



휘아 에어컵 이온 공기청정기

2명

어느 때보다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효과적인 성능에 디자인까지 두루 갖춘 휘아 에어컵 이온 공기청정기는 휴대성이 탁월하며, 쾌적한 공기뿐만 아니라 귀여운 디자인에 무드 등 기능까지 더해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드립니다.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2명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선보이며,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나무손잡이 직선 머그잔

2명

도예가 최대규 작가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나무손잡이가 시선을 끄는 머그잔은 깊이 있는 옥빛의 청자, 부드러운 흰색의 분청자, 깨끗하고 선명한 백자 등 다양한 색의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독자 설문조사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예보광장〉 발간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QR 코드로 접속하시면 바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번호 당첨자

휘아 에어컵 이온 공기청정기 이00(7509), 이00(9909)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최00(4483), 박00(4338)
나무손잡이 직선 머그잔 박00(6009), 김00(5140)

당신의 희망이 담긴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